

사설 - 제 7기 전기학위수여식에 부쳐

각자의 이야기를 쓸 때

우리 모두 오랫동안 몸담고 함께 했던 교정을 떠나온 몇 번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 경희를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쉽사리 짐작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들의 마음이 설렘보다는 막막함과 복잡함으로 얽혀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모호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등 비교적 단순한 삶의 목표를 지녔던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하나를 사더라도 다름을 추구하며 돈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중시하는 우리 세대의 특징은 풍자의 대상이 돼버리기도 한다.

우리세대가 내디딜 사회 분위기는 삭막하기만 하다. 몇 년째 지속되는 취업난도 그렇거니와 무슨 색의 ‘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평생의 계층이 정해지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젊은이들이 설레는 꿈을 갖는 것은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린 듯하다.

학위 수여식을 맞아 사회로 진출할 졸업생들은 캠퍼스의 울타리를 넘게 된다. 그들은 이제 냉혹한 현실과 시선 속에서 주어진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걸음을 떼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분투가 될 것이며 그 분투 속에서 애초의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 답을 구해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말았으면

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각자의 답을 담담히 적어 내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길 기원한다. 코로나19라는 악전고투 속에서 이뤄낸 졸업은 이후 인생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동력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더불어 당신이 채워나갈 많은 순간에 경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 인연과 같은 과거의 점(點)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 우리는 같은 교문을 지나며 같은 창문을 바라봤다는 사실만으로도 각자 이야기에 서로 흔적이 조금씩 묻어있음을 알고 있다. 그 흔적은 언젠가 시련을 극복하고, 각자 이야기를 완결시키는 촉매제가 될 테다.

제7기 전기 졸업생 모두의 이름은 경희가 지향하는 가치와 교육관 등을 상징한다. 경희가 지향하는 가치가 밥을 먹여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밥만이 인간의 삶을 채우는 게 아님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으로 더 황폐해져 가는 사회를 살아가는 힘이 될 테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각각이 평생 써 내려갈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길 바란다. 우리신문 역시 경희의 이야기를 하루하루 기록하며 여러분이 닦아놓은 길을 힘차게 전진하겠다.



말레이시아 해외탐방 프로그램 (사진=학생지원센터 제공)

동계 해외 연수 활발히 진행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교내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는 ▲국제화연수 ▲전공연수 ▲해외탐방이 있다. 국제화연수는 국제교류팀에서 선발하고, 테마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국제화연수를 수료하면 3학점까지 자유선택 항목으로 학점 인

정이 가능하다. 전공연수는 단과대학에서 주관하여 선발하고 전공과 연계된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전공연수를 이수하면 전공선택 학점이 인정된다. 해외탐방은 학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와 문화탐방을 통한 국내외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국제교류처는 온라인으로 국제화연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올해 동계연수는 대면으로 진행됐다. 국제화연수에 선발된 학생들은 싱가포르에 파견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외탐방에는 학생지원센터 주관으로 타이완, 말레이시아 탐방 프로그램이 열렸다. 각 탐방에서 학생들은 어학연수, 기업탐방, 봉

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타이완에 다녀온 오지우(응용화학 2020) 씨는 “이 프로그램을 대학 생활의 봄이라 표현하고 싶다”며 “코로나 학번이라 상상도 못 했는데, 연수를 통해 교환학생과 해외여행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각 단과대학별 전공연수도 활발히 진행됐다. 전공연수에서 학생들은 전공과 연관된 수업을 듣고 문화탐방을 경험할 수 있었다. 호텔관광대학 전공연수에 참가한 최수빈(컨벤션경영학 2020) 씨는 “이번 기회에 전공과 관련된 국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며 “교환학생은 조금 두렵지만 해외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학우들에게 전공연수를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2023학년도 봄학기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K-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안내

과정안내

가. 전문연구과정 :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교육을 통한 역량개발 프로그램

No	프로그램(과정)	접수기간	강의기간	주수	강의시간	수강료	정원
1	K미술-아티스트[주간반]	1/2-2/26	3/8-6/14	15	수 13:30-16:40	500,000	15
2	K미술-아티스트[야간반]		3/8-6/14	15	수 18:30-21:40	500,000	15
3	힐링테라피요가		3/7-6/27	16	화 18:00-20:00	400,000	15
4	부동산경제투자전문가		3/7-6/20	15	화 18:30-21:30	800,000	40
5	(★)시니어운동전문가양성(KRIEE-CSPT)		3/5-4/2	5	일 10:00-17:00	850,000	30
6	느리고 깊은 글쓰기	2/7-3/8	3/15-6/21	15	수 19:00-21:00	250,000	30

나. 특별연구과정 : CEO 및 각 분야 인사 대상 고품격 문화 체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

No	프로그램(과정)	접수기간	강의기간	주수	강의시간	수강료	정원
1	경희대학교 골프CEO	1/9-3/31	4/6-6/22	12	목 12:00-17:00	8,790,000	40
2	(★)노래지도자	1/2-2/26	3/8-6/14	15	수 14:00-20:00	1,000,000	35
3	(★)시니어모델 최고위지도자	1/2-2/26	3/6-6/12	15	월 18:00-21:00	1,500,000	30
4	4차산업과 문화경영AMP	2/13-3/12	3/20-6/5	12	월 18:30-21:30	1,200,000	40

※ “★”가 표시된 과정은 자격증 연계 과정임

접수방법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cce.ac.kr)에서 온라인 접수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cce.khu.ac.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하단의 '수강신청' 아이콘 클릭 ▶ 비학위과정(해당 과정) '바로가기' 클릭 ▶ 해당 프로그램 수강신청

학교법인 경희학원 구성원(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등) 수강료 감면 혜택(20~30%)

수강신청 후 경희대 메일(khsd3106@khu.ac.kr)로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증빙서류 확인 후 할인 적용 ▶ 결제 진행

※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cce.ac.kr) 참고

유의사항

가. 프로그램 운영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인원이 적정 인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다. 일부 학습과정은 과정 특성에 따라 수강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세부내용은 글미원 홈페이지(cce.khu.ac.kr)에서 과정별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02-961-0870~2 / khsd@khu.ac.kr)